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선택'의 바른 잣대

조금 웃기는 얘기가 있다. "한강에 스님과 정치인이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해야 하는가?" 정답은 정치인이다. 한강이 오염되니까.

정치관련 세미나에서 요즘의 정치인을 '공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았다.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하면서도 허탈함 또한 자리잡는다.

한달정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다. 누군가가 출마할 것이고 또 당선될 것이다. 출마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알맞은 지도자이고 과거에 어떤 공로가 있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외칠 것이다.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인물이니까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적 상황은 어떠한가. 첫째, 앞날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안개속이다. 예측가능한 것이 거의 없다. 둘째,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보수 ? 혁신간의 갈등, 여야간의 치졸한 갈등, 거기에도 지역간 갈등의 응어리가 아직도 상존해 있다. 셋째, 경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하류층으로 편입되어가는 현상이다. 넷째, 자살인구 증가, 이혼율 증가, 고령화 사회, 마약인구 증가, 합계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위기요소가 상존하는데 이에 관한 대안도 없고, 대안이 있다할지라도 실천불가능 할 정도로 정치권이 무력하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등장했지만 일부 네티즌, 시민단체 이외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참여정부에 참여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야당은 어떠한가. 수구로 무장하고 자신의 이익만 밝히는 낡은 정당이다. 차떼기 정당이고 거기에다 질퍽거리는 정부여당에 싸움만 걸고 있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란 말인가. 암담하고 무기력해진다. 그러나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고, 선거는 잔치다. 잔치를 잔치답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次善)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 입장에서 첫째, 올바른 역사관, 민족의식을 가진 후보자, 둘째, 사회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지도자, 셋째, 통일에 대한 비전, 국민화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있는 지도자, 넷째, 도덕성이 있고 신념과 신뢰가 있는 지도자, 다섯째,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여섯째, 지혜와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일곱째는 건강한 인물이여야 할 것이다.

부정적 입장에서의 지도자는 첫째, 부패 · 부정 · 탈세 · 횡령 · 파렴치범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지역감정 조장, 패거리정치, 골목정치 졸개로 따라다니던 정치인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대인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이 높은 사람을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협동을 하고, 목표달성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인류역사상 간디를 최고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이 갖춰야할 조건으로 첫째, 공정한 사람 둘째,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을 꼽는다.

우리도 이번 선거에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자를 잘 보고 잘 뽑아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웰빙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야말로 가장 앎과 이해를 통하여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종교이다. 신해(信解)라 하지만 믿음과 이해는 둘이 아니며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즈음 여러 불교대학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반가운 것은 불교대학들의 교과 내용이 다양화되어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여러 과목들이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체험적 실천의 장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에 노년층과 여성불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수강생들이, 청장년층과 남성불자들로 확장되고 있기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건강한 한국 불교를 이룩하는 바탕을 불교대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리를 가진 불교이기에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추세를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당장의

불자들의 '향학열'

호황에 안주한다면 불교 선양의 큰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방만하고 무분별한 교육으로 오히려 비불교적인 것이 끼어들어 불교를 어지럽게 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나날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 식상한 수강생들이 오히려 불교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준 높은 교과과정을 범 종단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여법한 교과과정을 통해 불교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핵심적인 과정을 함께하면서 각 불교대들이 독자적인 과정을 추가, 창의적이고 독창성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대학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불교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데는 종단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불교에 대한 지적인 요구가 앞으로 얼마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결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불교대학의 활성화가 불교 중흥의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약풀' 같은 삶

모진 질병 돌 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이산 혜연 선사의 발원문' 중에서)

불자들은 예불 때마다 이산 혜연 선사의 발원문을 읽으며 그렇게 살고자 발원한다. 이산 혜연 스님처럼, 약풀이 되고 쌀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매주 일요일 성남시 분당 보건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무료진료하고 있는 최윤근 박사(포천 중문의대 교수)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이 없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성남시를 설득해 2002년 1월 무료진료센터를 개설해 6,000여 환자를 돌보았다. 무료진료소를 찾는 근로자는 하루 평균 70~80명, 이들의 60%가 중국계지만 한국말은커녕 간단한 영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최박사는 환자들을 보다 잘 진료하기 위해 이번 학기 방송통신대학 중문과 3학년에 편입했다. 틈나는대로 중국어를 익혀 의사 소통은 가능하지만 외국인들이 마음편하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더 배우고자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하는 최박사에게서 진정한 인류애, 실천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느낀다.

불자들에게 친근한 말이 동체대비, 보시, 보살행, 육바라밀 등이다. 그러나 그 말들은 법문 속에, 책 속에, 관념속에만 있는 단어는 아닐지. 보시를 안하겠다는 불자는 없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기니까 문제다.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소외감과 피해망상에 신음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마음이 났을때 바로 '보시행'을 실천하자. 시작이 반이다.

■이경숙 (취재부장)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600회 맞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3월 17일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수요집회를 시작한지 600번째 되는 날이다.

할머니들은 70세가 훨씬 넘는 노구를 이끌고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참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 왔다. 할머니들께서 개인적으로는 결코 되뇌고 싶지 않을 고통의 세월을 공개하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위하는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보자.

지난 2월 말에는 국제 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실상을 알려온 정서운 할머니가 8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역사의 파랑에서 개인적인 삶을 파괴당한 할머니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일본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자.

고하영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문화재청 승격' 기사를 읽고

문화재청이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승격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들었다. 법개정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차관청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관청이 된 것보다 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재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재청이 차관청이 되기 이전에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이었다.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 ·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장은 1급 공무원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면 차관청에 맞는 조직과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문화재청이 제기능을 하기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게 조직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다. 김장우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법보시 해주시는 분들께

예년에 비해 더 추운 날씨 때문에 유독 창가에 고드름이 많이 열린 올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엔 동장군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더욱 따뜻합니다. 이 곳 원주교도소에 법보시로 신문과 책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길다란 고드름을 따서 칼싸움도 하고, 똑똑 깨물어 먹기도 하고, 동무의 옷 속으로 집어 넣기도 하고, 서로의 선을 호호 불어주던 기억들. 다른 기억과는 달리 아주 따뜻하고 맑은 추억이기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어립니다. 더불어 마냥 즐겁게 뛰어놀던 그 동무들의 얼굴이 그리운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

어느덧 3월도 여러 날이 지났고, 덩달아 봄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해가 바뀌어도 변함 없이 법보시를 보내주시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박진선(원주교도소 불교회장)

독자 시

위선

곧추 선 대나무야
곧추섬을 자랑마라

너의 곁에 다다르면
한숨소리 수이들고
고엽(枯葉)으로 덮은
치부(恥部)
드러날까 머뭇노라

이 글은 무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성규 씨가 죄를 참회하면서 선행이 '위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쓴 시입니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 박원구 불자 돕기를 회향하며 -

제불보살님과 원로대덕 큰스님들께 일심정례 귀의하옵니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급성간부전증'으로 서울 모 병원에서 간이식을 한 박원구 불자(전, 대불련 대구경북지부장, 현대불교신문 대구주재기자, 대구불교방송 기자)는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박 기자와 가족들이 한 올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 하던 그 때, 부처님의 자비심과 대학생불교연합회 등에서 닦은 반연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큰스님들과 불자들이 박 기자를 후원하기 위해 나섰던 일은 이렇게 뜻깊은 감사 인사로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기자는 아내와 사촌 남동생으로부터 간이식을 받은 후 경기도 이천 부모님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열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번에 부처님의 영험과 불자님들의 후원은 자비심의 무게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박 기자의 복됨을 칭찬하지만, 박 기자는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이번 인연을 생이 다 할 때까지 시은(施恩)으로 여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박원구돕기불자모임을 회향하면서, 박 기자의 빠른 쾌차를 기원하며, 아울러 그간 돕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대덕 스님들과 경향각지의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원하시고 보시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기 2548(04)년 3월 11일

박원구돕기불자모임 공동대표 일동

대구 중구 동산동 714번지 전화 **053)253-2886**
cafe.daum.net/0909samo(09사모)

※ 저희 모임은 회향하지만, 아직 통원치료 등 병원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박기자를 위해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 은행 구좌로 해 주시면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대구은행 014-08-031387-9 (예금주 : 박원구)
■국민은행 006-21-1103-644 (예금주 : 박원구)
■농 협 171560-51-031721 (예금주 : 윤수태(박원구모친)

1. 2004년 1월 19일부터 3월 10일 까지 박원구 불자 통장(대구은행,국민은행,농협) 계좌로 입금된 성금내역입니다. (통장 입금 날짜순 및 입금자명임)

신정식 100,000 이효원 20,000 이경림 500,000 김기언 50,000 조영순50,000 87학번일동 800,000 부산 김영곤 100,000 부도암 500,000 박진수 100,000 이한득 50,000 남용태 1,000,000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스님 1,000,000 반야사 명권스님 100,000 수도암 현선스님 100,000 송향사 정환스님 100,000 광덕사 운성스님 100,000 염불선원 성범스님 100,000 통천사 선지스님 100,000 최정사 금봉스님 100,000 불교방송 최현태 500,000 향림사 정관스님 200,000 금용사 혜선스님 300,000 포교사단 조수호 30,000 불교방송 김영성 50,000 영남불교대학(1차) 300,000 변윤경 50,000 불교방송 이응진 100,000 이재원 100,000 장태호 150,000 불교방송 김양모 200,000 김수진 100,000 양혜윤 50,000 불교방송 류창수 100,000 김성수 1,000,000 불교방송 박명한 100,000 관음사 원명스님 100,000 불교방송 박치민 200,000 김순희 500,000 심인수 200,000 심명여 50,000 이호(누벨) 50,000 불교방송 박수경 100,000 김병주 10,000 장재규 50,000 이광석 20,000 손성희 50,000 서봉사 경희스님(1차) 500,000 86학번 800,000 김정림 100,000 이형숙 50,000 불교방송 종수스님 1,000,000 장윤선 100,000 파계사 법천스님 1,000,000 불교방송 박재현 100,000 곽병호 500,000 이철순 100,000 자비의전화 고경순 100,000 서현숙 300,000 장계수 50,000 한우진 50,000 월간해인 200,000 김인숙 30,000 공애란 200,000 원종동 30,000 불교방송 이현구 100,000 김은영 100,000 대전사 법일스님 1,000,000 이형신 20,000 이수찬 200,000 정순희 10,000 이잠태 10,000 오봉삼 100,000 백원하 30,000 조정희 30,000 불교방송 김형웅 300,000 승형칠래인 350,000 이정희 10,000 심성학 100,000 백재원 20,000 이은희 50,000 이순자 10,000 허미숙 100,000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100,000 이유호 100,000 장치욱 300,000 이석순 30,000 원만사 신도회 715,000 장은지 5,000 백은숙 20,000 최성훈 100,000 김상분 50,000 서봉사 경희스님(2차)500,000 군위 동림사 주지스님 50,000 만호사 효정스님 50,000 청수사 성환스님 100,000 청수사 종열스님 100,000 연왕사 용안스님 100,000 원만사 보현스님 100,000 옥련암 정륜스님 100,000 수덕사 성각스님100,000 양진암 성연스님 100,000 보리회(서봉사,원만사,수도암,옥련암,금용사,수덕사,양진암) 500,00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장 손문철 800,000 망월사 동진스님 100,000 민경희 100,000 강승화 30,000 강민정 50,000 안홍사 장적스님 500,000 이지현 100,000 매화복지관 100,000 정귀혜10,000 김희승 50,000 임지영 200,000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1,000,000 동화사 신도회 일동(1차) 1,000,000 지산스님 500,000 불산스님 200,000 통도사 김경혜 10,000 영남불교대학(2차) 30,000 양명숙 20,000 이성호 30,000 이종수 5,000 광주 한마음선원 1,000,000 신혜숙 30,000 김문주 50,000 이숙향 5,000 익 명 10,000 이재도 50,000 해암스님 100,000 최인숙 30,000 강조영 100,000 법성사 부용스님 210,000 최영숙 20,000 배선혜월 50,00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310,000 장병석 30,000 김춘선 100,000 원문스님 50,000 정희경 10,000 임순님반야 75,000 불교방송 배종식 200,000 강조영 400,000 고경순(김옥희) 50,000 김선엽 200,00 익명(0 삼) 50,000 김창원 20,000 주영미 50,000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모금함 4,681,000 감천사 오정스님 1,000,000 동화사 강주 해월스님 100,000 금용사 혜선스님 100,000 동명사 105,000 동화사(2차):164,000원 현모사 27,000 보현사 378,000 내원암 111,000 복전선원 60,000 김순덕 10,000 평불협 경북대구본부 100,000 홍순덕 10,000 대구광역신도회 부회장 최정숙 50,000 동화사 종무소 직원일동 200,000(이종길5만,서재원5만,박은희2만,김교연3만,우주명5만) 조귀자 30,000 영명옥 10,000 대구 한마음선원(1차) 261,400 홍구 20,000 박기동 50,000 김희주 10,000 박유경 50,000 양후남 10,000 배석희 50,000 불교방송 사대동 100,000 김숙자 10,000 조옥순 30,000 김종숙 50,000 장훈석 30,000 이보형 50,000 김계옥 30,000 정미옥 50,000 용화굴 300,000 이린영 90,000 김정임 10,000 장만수 5,000 김호겸 20,000 박종경 50,000 김분선 50,000 주병수 50,000 세이-청불대경 100,000 강영도 100,000 윤상호 100,000 원만사 법홍스님 200,000 원만사 미타회 500,000 원만사 신도회 60,000 조정희 50,000 한기경 30,000 정선덕화 50,000 장기찬 10,000 최병조 100,000 김옥수 10,000 광주 이준엽 300,000 정보숙 50,000 홍광식 30,000 동명사 원종스님 415,000 신명옥 30,000 윤여란 50,000 박향란 50,000 정경순 10,000 강정희 10,000 김상길 207,000 김이숙 30,000 유금옥 110,000 김재욱 100,000 여옥세 30,000 김순자 50,000 은적사 10,000 임정숙 100,000 거해100,000 최병헌 50,000 대구경북 포교사단 염불포교팀 200,000 법광사 효신스님100,000 여태자 30,000 김병찬 15,000 김금주 30,000 전정윤 500,000 김현숙 50,000 상암스님 100,000 장경숙 20,000 신점기 30,000 김홍분20,000 최봉희 100,000 하형기 100,000 이천남 1,000,000 영주 고경사 300,000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1,000,000 맑고향기롭게(사랑회) 500,000 보현신협 서서열 200,000 하순식 50,000 자비의전화 100,000 이갑덕 30,000 이태일 25,000 이옥련 50,000 청 다 30,000 정법회거사림100,000 홍복사 청년회 200,000 송선희 10,000 한외태 20,000 최용수100,000 이동훈 30,000 김영희 10,000 은적사 윤명분 20,000 민해숙100,000 김영주 100,000 이용임 100,000 고희경 50,000 부처님 뜰 살림꾼들의 모임(조계종사찰종무원) 1,000,000 이순덕 10,000 이인기 100,000 이춘화 200,000 최은섭 30,000 백창현 200,000 강승구 50,000 강형구 50,000 포항관음사 1,389,000 양정임 200,000 박춘희 50,000 송원학원 권춘길 200,000 김정숙 100,000 은적사 허운스님 2,000,000 박철호 30,000 배기연 100,000 박숙희 30,000 영봉사 100,000 대덕암 50,000 이희관 100,000 오상심 30,000 범로스님 100,000 하종스님 100,000 혜휴스님 50,000 우해인심 50,000 전진우 30,000 이윤정 50,000 조명영 30,000 지보사 200,000 선석사 50,000 대구 한마음선원(2차) 2,536,500 김가자30,000 설영근 30,000 이복상 10,000 이재현 20,000 대구 운불련회장 신상용외 회원일동 1,000,000 길상회 회원일동 1,000,000 안덕순 30,000 한미자 50,000 영남불교대학(3차) 1,239,000 박종일 20,000 김명자50,000 지봉스님 100,000 이상번 100,000 홍순아 10,000 권오성 200,000 불교방송 정윤철 100,000 김명주 70,000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신동수,이월명화,동산불교대학 박선미,묘향산한의원, 지보사, 이명신,오희백) 1,130,000 김대희 30,000 미타선원 자비회 1,000,000 영남불교대학(4차) 24,000 대광맹인불자회 200,000 93학번일동 900,000 **합계 61,992,900원 (04.3.10. 현재 통장 입금액)**

2. 박원구 불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성금내역입니다.

박원구씨 배우자로터 확인된 금액이며, 경황이 없을 때 받은 것도있으므로, 명단에 누락된 불자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 500,000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종수스님 300,000 대구불교방송 직원일동 1,300,000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서서열 100,000 여래기획 곽병호 200,000 이수경 400,000 서울여래기획 공훈배 50,00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장 손문철 100,000 해인사수련동문회 전원중200,000 월간금강 최승천 100,000 서울불교방송 박호창 50,000 성왕기 200,000 김경자 50,000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1,000,000
팔공산답사회 회원 성금내역 ((남명주 50,000 이병규 100,000 곽연하100,000 이옥주 50,000 이은경 50,000 구수경 100,000 박명한 200,000
최광일 100,000 김명숙 50,000 이성예 100,000 이상현 100,000 정명교 300,000 류은화 20,000 손동미 80,000 곽홍태 100,000))
대불련 31년차 지부장 모임 1,000,000 한국불교기자협회 성금내역((천태종 500,000 진각종 500,000 대한불교신문 100,000 만불신문 150,000 밀교신문 100,000 불교신문 350,000 법보신문 500,000 불교와문화 30,000 불광 100,000 여성불교 50,000 주간불교신문 120,000 천태종보 100,000 한국불교신문 100,000원 현대불교신문 2,090,000 현대불교신문 신수회 300,000 현대불교신문 지사장단모임 200,000)) **합계 12,340,000원**

● 이 알림은 박원구돕기불자모임 공동대표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서 게재합니다.